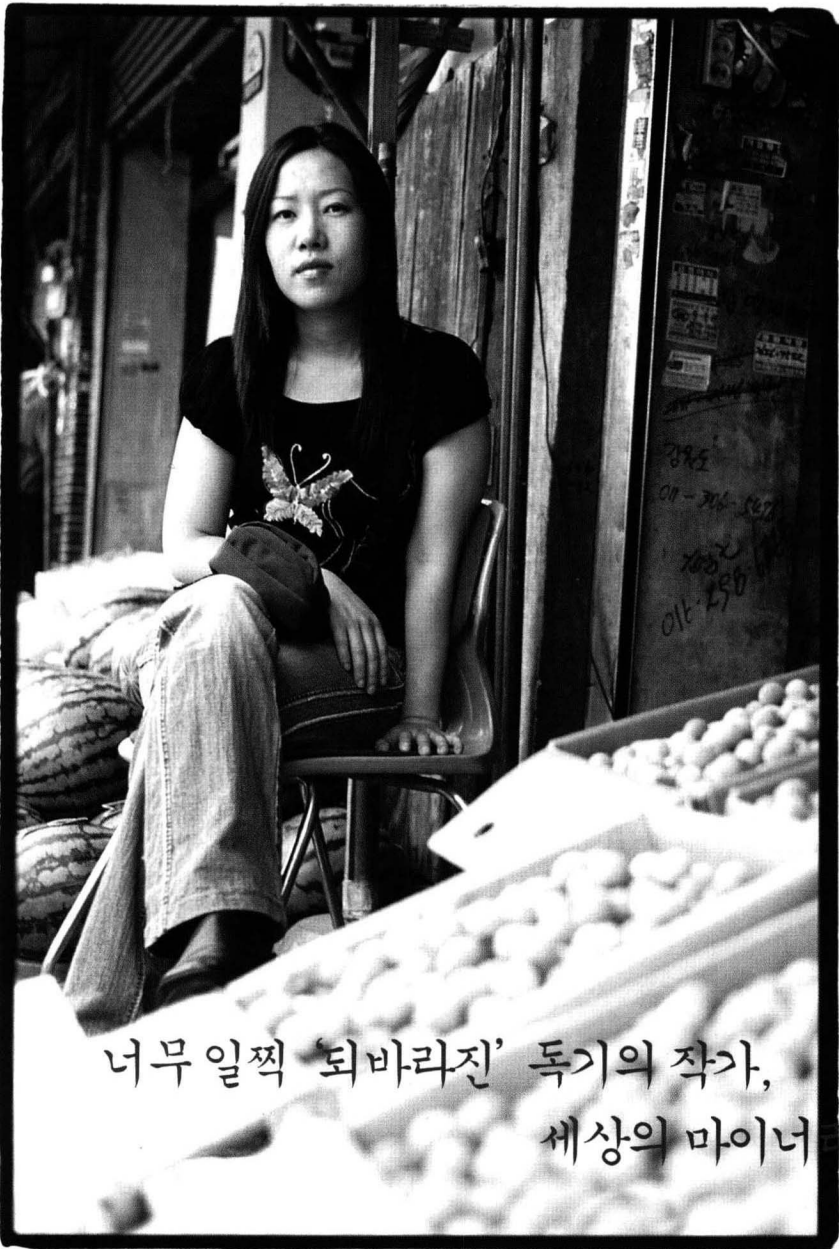


이명랑



너무 일찍 '퇴바라진' 독기의 작가,
세상의 마이너리티들을 감싸안다

장편소설 《나의 이복형제들》 연 소설가 이명랑

마이너리티의 질긴 유대에 관해 소설가 이명랑(32)이 분명한 답을 내렸다. 마이너리티의 생을 추적한 장편소설 《나의 이복형제들》을 통해 '이복형제'란 이름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비끄러낸 까닭이다. 이복형제, 불우하나 정감어린 이 명명 하나만으로도 소설은 묵직한 성찰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냉기와 온기 사이의 간극을 쉽게 극복하는" "모두가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남"이었던 우리들을 이명랑은 모질게 비틀고 있는 것이다. 전작前作 《꽃을 던지고 싶다》《삼오식당》과 같이 구성진 입담을 자랑하는 소설은 영등포시장이란 공간을 소설적 현장으로 또다시 펼쳐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혹자는 "영등포시장 얘기 다 쓰고 나면 필 쓸 건데?" 묻기도 하는데, 그것은 소설가 이명랑을 잘 모른다고 자백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영등포시장의 과일가게 상인으로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닌 그

가 밀천의 중요함을 모를 리 없다.

"나고 자란 곳이 영등포시장입니다. 영등포역 주변으로 유흥가가 즐비한, 상업문화가 발달된 곳이지요. 장편소설에 산문집까지 그곳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 영등포시장이란 공간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일찍 퇴바라진 아이들, 닥치면 다하는 상인들의 뚝심, 삶의 원동력이 되는 독기나 증오의 힘 같은, 시장이란 공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 제 문학의 기원이자 현재입니다."

《나의 이복형제들》은 마이너리티의 집결지로 불려도 좋을 만큼 다양한 군상을 내보인다. 만신의

운명을 벗고 가출한 열일곱 살의 '영원'을 비롯하여, 인도인 노무자 '깜땡이', 조선족 다방레지 '머저리', 몸이 굳어가는 불치병을 가진 '춘미언니', 제 몸만한 진돗개를 데리고 다니는 난쟁이 '왕눈이'가 부지런히 소설 속을 드나든다. 영어를 한다는 이유로 충북상회 박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깜땡이, 티켓을 끊어주고 몸을 팔아 돈을 모으는 머저리, 가갯방의 텔레비전을 사수하기 위해 서울상회 '협동합시다아저씨'에게 몸을 내주는 춘미언니 등 이들의 가혹한 생을 읽는 일은 몹시 불편하다. 영원은 자신이 기거하는 지하실로 날아든 까치를 두려워하며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끝내 놓지 않는 것은, 단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들 모두는 출구 가뭇한 곳에서 생의 의지를 놓지 않으려는 까치의 변주에 다름 아니다.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으로 탈주하려는 아름다운 마이너리티!

"상처를 가진 사람들, 상처와 상처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상처가 더나 심해지는지 혹은 힘이 되어 다른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하는 것에 골몰했지요. 소심한 여자에게 소심한 남자가 어울리는 것처럼, 상처 입은 열일곱 살 영원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은 그들의 상처를 전심으로 활아줄 수 있는 인물이지요."

《나의 이복형제들》에서 돋보이는 것은 강렬한 페이스이다. 영원은 서울상회로 찾아드는 그들을 불청객이라 부르며 시종 시니컬한 태도를 견지하지만, 소설의 막바지에 이르면 그들의 탈주를 적극적으로 돕는 의리 있는 '이복형제'의 몹을 기꺼이 감당한다. 제 한 몸 닮을 따뜻한 담요 한 장 없으면서 디지털 캐릭터가 그려진 비싼 담요를 왕눈이에게 사주는가 하면, 춘미언니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머저리의 비밀통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소설 속에서 이런 풍경들은 의외로 담담하고 건조하게 묘사되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상대를 울리고 마는' 이명랑의 노련한 숨씨 역시 돋보인다.

"개작이 거듭되면서 초고와는 전혀 다른 소설이 되었습니다. 영원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플라스틱 카메라' 부분은 초고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원에 대한 몰입이 지나쳤던지 만신의 딸로 영원이 내림굿을 받는 대목을 쓸 땐 밤마다 가위에 놀리기도 했습니다. 제 심리상태가 영원의 그것처럼 소설을 쓰는 내내 불안정했지요."

전작과 같이 이번 소설에도 많은 부분 작가적 체험이 담겨 있다. 영원이 일을 돕는 서울상회는 실제 그가 일을 돕던 대로 언니의 과일가게를 모델로 삼았다. 그는 무심하고 시큰둥한 영원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억척스런 상인으로 손님에게 과일을 팔았다. "모두가 피를 나는 형제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남"인 상인들의 진면과 이면을 까발리는 소설 속의 부분들은 리얼리티의 극점으로 보아도 좋다.

《삼오식당》과 《행복한 과일가게》에서는 사람 냄새나는 훈훈한 곳으로 시장을 묘사했지요. 그건 단지 시장에서 살았을 때의 느낌이었고, 직접 상인이 되어 과일을 팔고 보니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더군요. 과일가게 상인으로 깨달았던 많은 부분이 소설 속에 스며 있습니다. 당시 과일을 팔면서 한쪽에 노트북을 두고 부지런히 소설을 쓰곤 했는데, 소설가라는 것을 모르는 손님들은 '야, 여기서 소설가 하나 나오겠네' 하고 격려해 주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치고 미신이나 정크스를 많이 믿는 편인데, 전생에 저는 거상이었다고 해요. 저를 잘 아는 친구들도 '작가가 될 줄은 몰랐단' 며 섭섭해 하기도 하죠."

글을 쓰는 일에도 거상의 자질이 왜 소용없겠는가. 체험과 상상력을 밑천

으로 삼고 그것을 가공해 독자들에게 판다는 세속적인 대입을 통해 볼 때, 이명랑은 거상의 노릇을 훌륭히 해내고 있음이다.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것인지 그만큼 잘 아는 작가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계간지 <작가세계>에 장편 《키싱피버》를 연재하고 있다. 너무 일찍 되바라진 여학생들을 통해 '계급과 권력'의 문제를 보여줄 생각이다. 명랑한 소설에 비해 너무 큰 주제는 아닌가 그는 걱정하지만, 그만의 장점은 또 거기에 있다. 농담처럼 가벼운 삶 속에서 만나는 묵직한 성찰은 우리의 뒤통수를 매섭게 후려치지 않던가.

신예작가라는 문단의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그가 낸 책의 권수는 벌써 다섯 권이다. 그가 그런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름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다. 시주를 다니던 스님에게 얻은 이름은 '명랑'이지만, 실제 그는 명랑과는 거리가 먼 정서를 갖고 있다. 너무 일찍 되바라진 그는 닥치면 다 한다는 뜻심,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독기와 증오의 힘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틴다. 시장에서 나고 자라 시장의 속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명랑보다 맹랑이 어울리는 이가 바로 작가 이명랑이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나의 이복형제들》 이명랑 지음 | 실천문학사 | 300쪽 | 값 9,000원